

“우리의 傳統藝術 함께 배워요”

‘제2회 청소년 전통예술 체험학교’ 참가자 모집



지난해 8월 열린 전통예술체험학교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이 참가 학생들과 함께 전통 북을 두드리고 있다.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이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제2회 청소년 전통예술 체험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우리 교유의 문화를 좀처럼 접하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하루동안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1월 26일과 28일, 31일 사흘에 걸쳐 각각 풍물과 기악, 무용 체험으로 꾸며진다.

주로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전통예술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물체험은 창작타악, 대고모듬북, 사물놀이로 ▶전통악기체험은 대금, 소금, 장구, 가야금, 거문고, 해금 연주와 감상으로 ▶전통무용체험은 전통무용 기본 동작 배우기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 '2004 청소년 전통예술 체험학교'는 지난해 8월 개최하여 5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알기 쉬운 우리국악의 이해 등 '국악 체험과 이론교육' 중심의 1부 행사와 전통악기연주와 춤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체험학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과 연습실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립민속예술단 (☎031-530-8368)으로 문의.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1318 우리를 말한다 5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이 있어 좋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적당한 ‘멋’ 인정해 주세요



천 세 훈
내촌중학교 학생회장

“중학교에 있는 순간 순간이 즐거웠지만 그 중에서도 친구와 있는 것이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 친구들 없는 학교를 상상한다면 아무리 내촌중학교라 해도 저는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촌중학교에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때문에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내촌중학교 학생회장 천세훈(16.사진)군의 중학교 3년 과정을 마치면서 가장 보람 있게 생각되는 일에 대한 대답이다.

아주 맑고 편안한 마음을 주는 하늘색을 가장 좋아한다는 천 군의 장래희망은 수학교사로 수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교사라는 직업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천 군이 이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시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 천 군은 부모님에 대해 “정말 자상하시고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밖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만 집에 오시면 항상 웃으면서 함께 대화를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힌다.

내촌중학교 학생회장으로 천 군이 1년동안 남긴 것에 대해 “솔직히 내촌중학교에 남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후회 가 되어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더 모범을 보이고 선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차기 학생회장에게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생회장의 임무

를 다하고 더 멋있고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학생회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천 군이 다시 중학생이 된다면 1학년 때부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학생다운 학생으로 학교의 규칙에 임하면서 생활하고 싶다고 한다.

내촌중학교는 천 군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참한 학생으로 만들어준 것과 항상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점이 돋보인다.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무엇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뒤 처지지 않는 학생이 되고 싶다. 천 군이 만약 교장선생님이라면 기초가 튼튼한 학생으로 교육시키고 싶다고 한다.

내촌 중학교는 졸업 후에도 다시 다니고 싶은 학교, 후회하지 않는 학교라고 말하는 천 군이 광동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은 부모님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처음에는 포천고등학교

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 광동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포천시 내촌면보다는 남양주시 내촌면이라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천 군은 “이건 정말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학교를 가도 내촌초등학교에서 광동중학교로, 내촌중학교에서 광동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광동이라는 학교도 크기만 클 뿐이지 내촌중학교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촌중학교가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루 빨리 이런 편견을 없애고 ‘포천시 내촌면’이란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스포츠 종목중 농구를 제일 좋아하는 천 군이 만약 대통령 이 된다면 “선생님들의 봉급을 더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학생보다 더 노력하는 분들이 선생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으로서 어른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시기에 멋을 부리고 싶은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엄책을 하거나 과마를 하거나, 옷을 아하게 입거나 거추장스럽게 입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적당한 멋을 부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순진의 연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15)

교실마루 밑은 우리의 보고(寶庫)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우리 4학년 교실은 동쪽 언덕 위에 있는데 세 학급만 나무로만 지은 교실입니다. 교실은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었는데, 가끔 소나무로 켜 마루에는 웅이 자국이 있어 구멍이 동전 크기만큼 뚫린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유리구슬이나 동그란 별 따위를 학교에 가져와 놀다 걸러내서 그 구멍에 넣으십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칭소를 하고 일체와 나는 따로 남았습니다. 교실 밖 하단에는 환풍 구멍이 있는데 언덕이라 석양에 지는 햇빛이 들어 웅이구멍으로 바라보니 딱지와 구슬, 그리고 동전과 크레용, 동양연필이 무수히 보입니다. “야, 우리 저기 들어가서 딱지 꺼내자!” 그것을 본 나와 일체는 환풍 구멍으로 들어가 꺼내기로 하였습니다. 유난히도 키가 작고 왜소한 나는 머리만 겨우 들어가는 환풍 구멍으로 머리를 밀어 넣은 다음 한 팔씩 밀어 넣으니 쉽게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야, 여기 구슬 무진장 많다. 앞싸야... 십원짜리 동전두 주었다.” 먼저 들어간 내가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체는 머리가 커서 들어 올 수 없을 것 같더니, 어떻게 용케도 머리를 옆으로 누여 더 밀고 들어왔습니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여기서 주운 것은 사이좋게 똑같이 나누어 갖자.” 내가 제안하자 일체가 고개를 끄덕여졌습니다. 교실의 마루 밑은 그야말로 요지경 속입니다. 무수히 많은 먼지와 종이 속에서도 십 원

짜리 동전과 오 원짜리, 십 원짜리 동전, 오십 원짜리 지폐, 그리고 일 원짜리 지폐와 십 원짜리 지폐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교실이 생기고 교실 밑으로 들어가 아이들이 우리가 처음인가 봅니다. “야, 우리 재수 대박 좋다 그지?”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별 딱지, 동양연필, 크레용 도막, 종이로 까는 색연필, 연필 깎는 칼, 컴퍼스, 대나무로 만든 30cm짜리 자, 유리구슬 등의 수많은 노획물이 먼지꾸러기가 되는 것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야, 날이 어둡나봐! 너무 캄캄해진다. 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그래 난 일투 나갈 테니까 너는 저 구멍으로 나가.” 교실 밑바닥을 샅샅이 뒤진 우리는 밖으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구멍 밖에 노획물을 내 놓고 나는 머리부터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요. “야, 큰일 났다. 못나가겠어?” 일체가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풍 구멍은 셋이 있었는데, 먼저 들어 올 때의 구멍이 아닌 다른 구멍으로 나가려 하였던 일체는 그만 머리가 걸려 잘 나올 수가 없나 봅니다. 일체는 나가려고 아무리 노력 하였지만 그럴수록 힘만 빠져 갑니다. 급기야 일체는 엉덩이 소리 내어 읊니다. 겁이 두려워 난 나는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나? 웬일이야?” 때 마침 담임선생님께서는 퇴근하려던 참이라서 무슨 일이 있느냐며 먼지꾸러기가 된 내게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일체가 교실 밑에 들어가서 못 나와요!” “어디, 어디?” 선생님께서서는 성급히 물으시며 나를 앞장 세워 따라 교실 앞으로 오셨습니다. “일체야, 들리나?” 선생님께서서는 환풍 구멍을 들여다보시며 안타깝게 부르셨습니다. “에...” 일체는 기어들어가듯 모기 목소리로 대답 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라!” 선생님께서서는 어디에선가 장도리 망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짠 사각틀을 뜯어내고 일체를 구해 주셨습니다. “일마, 그런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선생님은 한숨을 돌리시며 우리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먼 하룻길을 기뻐 웃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이른날, 그 환풍 구멍은 철망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계속)

천안 중앙청소년수련원서 혜성축제'

천문관, 13일~14일 다양한 과학체험 행사도 마련



한국천문연구원(원장 조세형)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혜성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을 찾자, 나를 찾자!” 라는 주제로 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이창식)과 함께 여는 이 축제에는 가솔 청소년 300여명도 참가,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을 통해 자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축제 첫날인 13일에는 새해 벽두에 찾아온 ‘백홀츠 혜성’을 주제로 한 천문학 강연과 망원경을 이용한 혜성 관측 및 행성, 달, 별자리 등의 관측도 이뤄지며 다양한 과학체험 행사도 열린다. 또 14일에는 우주로 강연 및 태양 망원경을 이용한 태양의 홍염 및 흑점 관측도 한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http://www.ny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천문연구원은 이 축제와 함께 재미있는 별자리 교육 연구회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별의 축제’를 14일 전북 장수의 계남중학교에서 개최한다. 이 축제에서도 망원경을 이용한 혜성,행성 관측과 야광 별자리판 만들기, 천문학 강연 등이 있을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모발의 혁신 퍼 슨 코리아(주)

의정부점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드립니다”

PERSON KOREA



퍼 슨

취침, 운동, 사우나 OK!!
심는가발맞춤점
대표: 1544-5868 본사: 02)3143-6474~6

- 고객만을 위한 1:1 상담, 시술
- 양질 100% 인모 심는 가발
- 다양한 신제품
- 오랜경력의 스타일링
- 전국지점망 A/S
- 타사제품 관리, 수리